

## 증권 디이제스트



KB증권

## 연 8% ELS 등 상품6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5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 HSCEI, Eurostoxx50)으로 최고 연 8.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680호(3년만기, 6개 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4종과 파생결합증권(DLS) 1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6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677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S&P 500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 예 4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2%(세전)의 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5.15%(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 거래 위축에 증권사 순익 뚝… 키움 25%↓

매출액 5.7%·영업익 15.9% 감소  
위탁매매 부문 수익성 대폭 하락

하반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증권사의 3분기 실적 기상도도 '흐림'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증시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탁매매 부문 수익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의 3분기 순이익(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총 50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1%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각각 5.7%, 15.9% 감소한 1조5812억원, 663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증시 부진이 주요인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하락은 거래부진에 기인한다. 3분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통화 불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분기보다 각각 0.7%,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 분기보다 32.7%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가 상승하던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코스피는 29.31포인트 하락한 2,309.57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794.99로 장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는 하루 평균 14조원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다.

주가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상품의 조기상환 규모도 줄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주요 지수 중 가장 부진한 지수를 기준으로 발행시점대비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5% 이하인 경우 조기 상환을 결정한다. 보통 발행시점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평가하는데 최근 주요 지수인 코스피200(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 들면서 조기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부문이 강한 키움증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올 3분기 5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24.8% 감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1278억원(-23.7%), 삼성증권 837억원(-16.4%), 미래에셋대우 1348억원(-14.2%), NH투자증권 1028억원 (-12%) 순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물론 투자은행(IB) 부문 수익도 감소했다. 하이투자증권은 5개 증권사의 IB 수익은 2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6%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

기 IB 관련 이익은 대형 부동산 유동화 및 해외 자문 수수료가 많았던 2분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자본투자(PI) 부문의 성과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국 주가지수가 하락 또는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 시장도 부진했다.

## ◆ 4분기 실적도 '먹구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도 증권사에게 '비수기'로 꼽힌다.

특히 위탁매매 관련 수익이 부진할 전망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11월부터 북클로징(회계장부마감·Book closing)을 진행한다. 또 세법상 대주주(코스피 1% 혹은 15억원, 코스닥 2% 혹은 1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고려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대금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 예산과 관련된 사업집행 건이나 IPO 수요도 연말보다 연초를 선호하기 때문에 IB 관련 이익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미래에셋대우

## 신규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미래에셋대우는 신규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0월 24일부터 4회(주1회,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금융투자업에 익숙지 않은 신규 투자권유대행인을 위한 기초 과정부터 해외주식과 개인, 토직연금 세금제도에 관한 심화과정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강의는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 개요 과정, 연금 전문가 과정, 글로벌 금융 시장과 펀더멘털 분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웰스플리오 이준수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전진혁 본부장, 이안금융교육 최일 CFA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실질적인 영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연금 유치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의 실전 영업 전략 과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 삼성 한국형 TDF 5000억 돌파… 전체시장 40% 차지

2045펀드 설정 2년만에 21% 성과  
최근 1년새 5%… 안정적 수익거두

삼성자산운용의 타깃데이트펀드(TD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3일 '삼성 한국형TD F(타깃데이트펀드)' 시리즈가 2016년 4월 출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수탁고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TDF 시장은 약 1조 2800억원 규모로 삼성 한국형TDF 시리즈가 이 중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펀드는 설정후 꾸준하게 수익을 내며 수탁고 증가를 뒷받침했다. 특히 7개 시리즈 상품 중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2045 펀드는 설정 후 21.14%, 최근 1년 5.08%의 성과를 거두는 등(에프앤가이드 10.02 기준) 최근의 변동성 장세에서

## &lt;삼성 한국형 TDF 및 국내 TDF 시장 규모 추이&gt;

구분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7년 9월	2018년 1월	2018년 3월	현재
삼성 한국형TDF	출시	1,000억 원	2,000억 원	3,000억 원	4,000억 원	5,000억 원
국내 TDF 시장 규모	-	약 1,840억 원	약 4,170억 원	약 7,640억 원	약 8,540억 원	약 1조 2,870억 원

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 측은 삼성 한국형TDF 성과의 주요인으로 변동성 관리를 꼽는다. 연금에 특화된 초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운용 노하우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 한국형TDF 2045 펀드의 표준편자는 최근 1년 기준 7.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출시된 해외펀드 중 글로벌 분산투자 주식형 펀드의 유형 평균(11.50%)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일 뿐 아니라 업계 TDF 동일 유형 상품 평균(9.62%)과 비교해도 뛰어난다. 펀드의

표준편자는 대표적인 위험 지표로 표준 편자가 클수록 높은 위험도를 나타낸다.

삼성 한국형TDF는 미국 캐피탈그룹의 13개 펀드에 분산투자한다. 미국, 유럽, 아메리카 마켓 등 전 세계 70여 개국, 1200여개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연금투자 상품으로서의 낮은 변동성을 유지한 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펀드의 글로벌 분산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북미 49%, 유럽 31%, 아시아 15% 순의 지역 비중으로 투자하며,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순의 투자비

중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2% 안팎으로 편입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분산투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삼성 한국형TDF는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 왔다. 펀드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4월 수탁고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월엔 3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월말 잔고 기준으로 출시 이후 한 번의 자금 유출 없이 순증했다.

연금사업본부 김정훈 본부장은 "출시 초기엔 소수의 판매사에서 니즈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고객집단 채널에서 투자문의가 이어지면서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 한국형TDF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연금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 판교대장지구 아파트분양 '스타트'

판교·분당 보다 공급가격 낮아  
2020년까지 총 5903가구 분양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수월하다.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서판교 터널(예정)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로 5분 거리

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

판교대장지구 제 2·3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 제 2 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만여m<sup>2</sup>의 토지에 내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58만여m<sup>2</sup>의 제 3 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주금공 '지역사회 아이디어'  
부산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지역사회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 공모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부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가진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를 지원해 국민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주제는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 안전망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아이디어다. 공사는 제출된 아이디어 중 6개 정도를 선정해 기업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89@

## 교보증권

## 새마을금고 계좌개설 이벤트

교보증권은 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 후 첫 거래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새마을금고 전국 지점에서 교보증권 국내주식 및 선물옵션 계좌개설 후 첫 거래 고객에게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한다.

교보증권 김경민 GBK부장은 "전국 수백개 점포를 보유한 새마을금고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 누구라도 편리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GBK부문 문의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